‘기술혁신’ 청년 창업자에 1023억 지원

중기부·과기부 등 7개부처 참여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사업 추진단

기업 1곳당 1억… 1500社 혜택
부처별 특화분야 전문역량 결집
만 39세 이하·4차산업 중점지원

청년들의 기술혁신형 창업을 위해 7개 중앙정부 부처가 뭉쳤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바우처 형태로 창업기업 1곳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기술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23억원의 예산도 마련했다. 이는 1500여 개 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관계부처들의 지원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추진단에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두루 참여했다.

1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 추진단 발대식에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가운데)이 각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추진단은 부처별 특화분야 전문역량을 결집해 청년 혁신기업을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칸막이를 깨고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부처는 앞으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관리, 정책 수립·조정 및 산하기관 간 협력, 창업기업 모집 선정과 창업기업 사업화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기술 창업 전 분야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중기부) ▲빅데이터·차세대통신 및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분야(과기부) ▲지능형 로봇·신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분야(산업부) ▲스마트 의료기기·뷰티, 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복지부) ▲디지털 혁신기술, 라이프 케어 분야의 여성 창업자(여가부) ▲자율협력 주행·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 교통시스템 분야(국토부) ▲핀테크 분야에 창업자 선발(금융위) 등을 각각 담당한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실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사업인 만큼 각 부처가 통합해 하나의 정부과제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의 청년창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를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하고 4차 산업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지원금은 물품구매, 재료비,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흥비나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기자재 구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형 태양광발전’ 육성 고정가격계약제도 시행

산업부, 발전소사업자 신청 접수
사업자 수익창출 일환 5년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이번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며,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만9175원/MWh이며, 같은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수소차 생산라인 살피는 백운규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울산 북구에 있는 ‘단일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생산규모(141만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하언태 대표, 박광식 부사장의 안내로 수소차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 아시아나 기내식 업체 3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기내식 공급을 위해 기내식 공급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아시아나 기내식 제조현장에 식음료 검식관을 파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음료 검식관은 2인 1조,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상주한다.

점검대상은 샤프도앤코코리아(인천 중구),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경기 김포),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충북 보은) 등 3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검식 ▲ 기내식 보관·배송 시 적정 온도관리 ▲ 작업장 위생관리 ▲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방지를 위해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냉장고 소독과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예술 흐르는 한강 만든다

내달 25일부터 공공미술프로젝트
‘한강 공공예술공간 사업’ 가시화

밤섬을 향해 누운 ‘나무로 만든 둥지’, 한강의 물결과 생물체를 재해석한 대형 입체조각, 연속적인 고리 모양으로 한강 주변 풍경을 스캔하듯 펼치는 설치작품, 낡은 어선에 거울조각을 붙인 대형 모자이크….

여의도와 이촌 인근 한강부지가 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서울시가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2년 넘게 추진해온 예술공원 조성이 오는 8월 25일부터 가시화될 예정이다. ‘한강 예술로 멈춰. 흐르다,’ 라는 주제의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국내 30팀, 해외 7팀의 총 37팀의 작가들이 참가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한강예술공원조성을 추진해 오면서 진행돼왔다.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했다. 애초에는 여의도와 반포가 사업부지로 계획됐지만, 강남북 문화향유 기회를 균형있게 하자는 등의 취지로 반포에서 이촌으로 사업지를 변경했다.

이번 한강예술공원사업 총감독을 맡은 은병수 감독은 “한강은 항상 그 자리에 수천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개발과 공사 등 단절된 시간들이 있었다. 최근들어서 산책로, 체육시설, 자전거로 등 시민 친화적인 장소로 변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시민들에게 예술이라는 감성을 조금이나마 향유할수 있게 하고, 놀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한다는 작은 의미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강예술공원은 ‘활기차고’ ‘여유로운’ ‘설레고’ ‘비밀스러운’이라는 세부 주제로, 네 개의 구역을 설정해 작품 군을 꾸린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활기차고’를 주제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 특성에 맞추어 밝은 느낌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정책브리핑

문체부-해수부

해양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남·서해안 저지대 침수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달과 지구가 매우 가까워지는 ‘슈퍼문(Super Moon)’ 현상과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남·서해안의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고 11일 전망했다.

이번 슈퍼문은 그믐달 모양이며, 지구와의 거리가 약 35만7431㎞로 올해 두 번째로 가깝다. 여름철은 기압이 낮고 수온이 높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 자체가 높아 이번 슈퍼문 기간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정한 4단계 고조정보(관심, 주의, 경계, 위험)를 기준으로, 이번 슈퍼문 기간에 22개 지역이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인천, 목포, 마산, 성산포 등 4개 지역은 최대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이달 11일 12시경에 중국 푸저우 육상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최신웅 기자

정부-대구시

내일 ‘사회적경제 박람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최했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부처, 대구시 등으로 참여를 확대했다.

전시관은 기업관과 특별관, 테마관으로 구성·운영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4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기업관에서는 교육·문화·예술, 먹거리(농식품), 환경·에너지, 복지 및 서비스, 제조업 특화상품 등이 전시·판매된다.

/세종=최신웅 기자